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	
	배포일시	2017. 10. 31(화) / 총 1매(본문1)	
담당 부서	항공보안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용원, 사무관 이한복, 주무관 김규희 • ☎ (044) 201-4232, 4236, 4238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국토부, 위법소지 알았지만...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 보도 관련

- 국토교통부는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공항공사가 해야 한다는 항공사의 의견('17.9)이 있어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.
- 다만, 공항운영자(인천국제공항공사)가 받은 법률자문결과와 상이하여, 원활한 미국 취항을 위해 2001년 9.11테러이후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항공사가 보안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.
- 향후, 항공사가 다른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항공보안당국에 보안 강화조치 이행을 약속한 경우에도 공항공사가 해야 하는지 명확한 자문을 통해 항공보안 확보 및 국민 입장에서 공항공사와 항공사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 (국민일, 10.31) >

- ◆ 국토부, 위법 소지 알았지만...미국행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
- 정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문제를 사전에 파악했지만 특별한 조치 못해
- 항공보안법을 개정하거나 공항공사가 보안검색을 하는 방법 필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이한복 사무관(☎ 044-201-423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